

비전대 이지영 교수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수상

전주비전대학교 이지영 교수(미용건강학과)가 2024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회는 각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주도하고 지역발전, 사회봉사, 기술증진, 인재육성 등에 공헌한 숨은 일꾼들을 발굴하는 취지로 진행된 행사다.

이에 이지영 교수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인 에듀테크를 활용한 전국 지자체, 학교, 학회 등에 그간의 노하우를 전수해 '생성형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역량강화, '학습자 중심 맞춤형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한지와 한복패션 문화의 계승·발전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교수는 "이번 수상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닌 전주비전대학교 구성원들과 전주패션협회 회원들 덕분에"이라며 "가슴 뛰는 VISION! 도전과 열정이 있는 VISION!"이라는 슬로건처럼 앞으로도 제자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지영 교수는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학과장을 맡고 있으며, (사)전주패션협회 협회장, 미래융합교육원 감사, Google Educator Group 대한민국 Leader로서 교육계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도통동, 마트타운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도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동장 소선자, 민간위원장 김희만)는 지난 29일 도통동 소재 마트타운(대표 김경진)을 찾아 착한가게 2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매출의 일정액(월 3만원 이상)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기부된 금액은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되며, 가입하면 현판 부착 등 가게 홍보와 세액공제를 지원, 기부에 관심이 있는 분은 도통동 맞춤형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희만 위원장은 "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으며, 소선자 동장은 마트타운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생고을시장 기초질서 확립 민관 합동 캠페인

정읍시가 생고을시장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고령 중심의 장보기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며 상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정읍시는 지난달 29일부터 29일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생고을시장 기초질서 확립 민관 합동 자도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시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과의 각 부서장과 생고을시장상인회 등 20여 명이 참여해 초산로 일대 점포를 대상으로 고객선 준수와 주정차 공간 적치물 이동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도를 실시했다. 또한, 동절기 화재예방, 화재공제 가입 안내 및 금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며 상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지평선중, 사랑의 연탄 500장 전달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지평선중학교 교장 안성균(안)가 지난달 29일 겨울을 맞아 성덕면과 연계해 사랑의 연탄 500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평선중학교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학생회 주최로 지난 2005년부터 진행해왔으며, 자체 바자회 수익금 일부를 마련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연탄 봉사는 교직원 및 학생 20여명이 참여했으며 난방 취약 가정에 직접 연탄을 배달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했다.

안성균 교장은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고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고자 연탄 나눔 행사를 기획했다"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보람을 느끼고 봉사의 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순 성덕면장은 "난방 취약 가구를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준 지평선중학교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연탄 나눔 사업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국옹변·스피치·시낭송 강사시연’ 성료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전체부 대상 전민경씨·전체부 최우수상 김경자·정현자씨 등

제4회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경제살리기를 위한 전국옹변, 스피치, 시낭송 강사시연 대회가 지난달 30일 전주시청 강당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한국스피치옹변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스피치옹변협회전북본부 주관한 이날 대회는 에너지 절약과 경제 살리기에 동참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4번째를 맞이했다.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이 후원 및 협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운·정동영 국회의원, 김양욱 (사)한국스피치옹변협회전북회장, 김중수 본단체 임실군지부장, 황금석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이사장, 김기수 전북라더십연구원장, 권태오 본단체 명예회장, 강정원 전북대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이호기 본단체 전북이사 등 임원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 전체부 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의 영예는 전민경씨에게로 돌아갔다.

김경자씨와 정현자씨가 전체부 최우수상을, 최병오씨



는 전체부 특상을 수상받았다.

대학 일반부 대상은 고진호(전북도지사상)·양건식·정도현·김종천씨가 수상받았으며, 대학 일반부 특상은 정차봉·오아순·한태순·신동선·서강원·정순임·정미순씨가 수상받았다.

송순영씨와 운수현씨는 시낭송부 대상을 오동선씨와 지문숙씨는 시낭송부 특상을 수상받았다. 박은숙씨와 정미순씨는 시낭송부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학생부 대상은 차원준군이, 유치부 대상에는 박조아·이하나 어린이가 수상받았다.

이밖에 한태순·박병철·전민경·김민경·권정환씨가 주요공로 표창을 수여받았다.

김양욱 (사)한국스피치옹변협회전북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전국에서 참가하신 연사, 지도교사,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태권도시범단, '위대한 태권도' 경연 통합 1위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싸울아비'가 2024 위대한 태권도 경연대회에서 통합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회는 태권도의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퍼포먼스 대회로, 지난 9월 예선 심사를 거쳐 무주 태권도원에서 본선이 치러졌다.

이에 전주대는 예선 심사에서부터 1위를 기록하며 본선에 진출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본선 경연에서는 1경기(정통 태권도 시범)와 2경기(자유 퍼포먼스 태권도 시범)에서 각각 1위를 기록, 통합 1위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싸울아비'는 태권도 전문 평가위원들로부터 격과 구성의 조화롭음과 매우 섬세하고 트렌디하면서도 독창적인 태권도 퍼포먼스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를 총괄한 태권도학과 이숙경 학과장은 "이이번 경연대회에서의 성과는 단순히 격과와 시범 기술만을 넘어 연출성, 연합 동작, 품새, 겨루기, 호신술 등 태권도의 중요한 요소들을 잘 결합해 준비한 결과물이다"이라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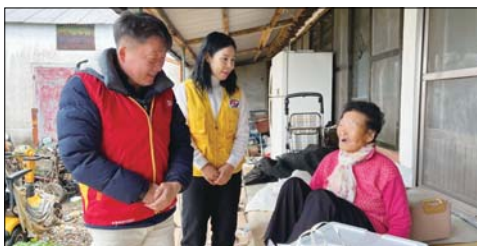


재인천남원고동문회,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남원시는 재인천남원고 동문회(회장 안재운)가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달 28일 재인천남원고 동문 송년회 자리에서 임원과 회원들이 고향인 남원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모았으며, 안재운 회장은 "우리 고향 남원의 발전을 위해 한바탕 한뜻으로 모은 기부금을 좋은 곳에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우체국,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나눔행사 추진

부안우체국(국장 임선옥)에서는 대한적십자사부안지회(회장 박영숙)와 목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행사를 가졌다.

특히 부안지역 주민들의 우체국예금(있대뱅크) 기부포인트 재원을 가지고 대한적십자사(부안지사)에서 관리하는 차상위계층을 방문 부안산 한우시골과 떡국 등 음식료품을 제공했다.

부안우체국은 대한적십자사 부안지사와 24년 3월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총 10여차례에 위문활동과 각종 상해보장을 위한 민원의 행복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해 앞장서 왔다.

/부안=김석진기자

김제시 약사회, 종합복지관에 '사랑의 이불' 전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약사회(회장 박환철, 여 약사회장 방현신)가 지난달 29일 김제노인종합복지관에 겨울 이불 50채를 후원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이불 나눔 -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와 김제시 약사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후원된 이불은 김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생활지원사를 통해 각 가정으로 전달됐다.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노기보 관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와 김제시 약사회의 귀중한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시 약사회 박환철 회장은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불을 후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이며,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는 시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에 마련된 접수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모금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목표 모금액을 달성했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 기부와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연말 나눔의 온도 올린다... '희망2025 나눔캠페인'

정읍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기 위해 '희망2025 나눔캠페인'을 시작한다.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6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캠페인의 슬로건은 '기부로 나를 가지 있게, 기부로 전복을 가지오게'로 나눔을 통해 나와 지역사회를 함께 아끼고 나누는 의미를 담았다. 기부금은 긴급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층 명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남원시보건소, 싱싱생생 건강교실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어르신들의 활력충전, 후한기 건강을 지키는 동절기 싱싱생생 건강교실(이하 교실)을 읍·면·동 205개소의 경로당에서 12월 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실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88개소에 대해 폭염기간 휴강없이 총512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참여자의 많은 호응과 98%이상 만족도로 운영을 마쳤으며, 동절기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전체 496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참여 조사를 실시하고, 205개소 신청 장소에 대해 36명의 전문 체조강사를 선정, 강의 스킬 전수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처법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실은 주 2회 근력 및 유연성 강화 생활체조 등 신체활

동과 방문간호사의 혈압, 당도, 콜레스테롤, 심박세동 기초 건강측정과 건강상담을 통해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질환 관리, 치매 및 노인우울 예방 교육 등 촘촘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지원단, 체조강사 총 85명이 한파대비 건강수칙 및 한랭질환 관리 교육을 집중 홍보하고, 한파특보 발표 시 참여자 안부 확인과 응급상황 시 보건·의료연계 등 재난 대응미 활동을 추진해 한파에도 어르신들의 건강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근력과 신체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제일사회복지재단, 제7회 장학금 전달식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사회복지법인 김제제일복지재단(대표 최재식)이 지난달 29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학생 1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장학금 선발 기준에 맞추어 초등학생 9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으로 10명을 선발하여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어려운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학업 의욕을 북돋아주고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 최재식 대표이사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김제제일복지재단의 작은 온정의 마음이 지원받는 학생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김제제일복지재단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비전대 사회복지경영과, 일본 사회복지기관 탐방

전주비전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과 학생들이 최근 일본 오사카, 교토 사회복지시설 탐방을 다녀왔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대학선진사업 일환으로 진행, 사회복지경영과에서 PPT발표, 면접 등을 통해 8명을 선발했다. 이에 탐방단은 간사이사회복지전문학교를 방문해 선진대학 견학 및 일본 개호 관련 특강을 비롯한 산업체 탐방, 현지 대학생 및 기업인과의 교류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가졌다.

참가 학생들은 활동 내용·활동 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제출, 대학은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했다. 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탐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에 대해 알게 됐고, 다양하고 복지시설을 경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장은성기자